

공정방송 깃발아래 전국이 하나로 ·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문화방송 노보

225호

2017년 5월 29일

발행인 김연국 / 편집인 허유신 / 편집 송옥분
주소 서울 마포구 상암로 255 MBC미디어센터 11층
TEL 02_789_3881~6 FAX 02_782_0135
www.mbcunion.or.kr 트위터@saveourmbc

무단협 1594일째
지명파업 421일째

김장겸 · 고영주 퇴진! 우리의 힘으로 꽃애내겠습니다



김장겸·고영주 퇴진행동 선언문

벌써 9년이다. <PD수첩> PD들에 대해 검찰의 압수수색과 체포가 들어오고, <뉴스데스크>의 간판 앵커가 청와대의 압력으로 강제 하차했다. 곧이어 청와대에서 ‘조인트 카인’ 김재철 사장이 낙하산으로 내려왔다. 언론자유는 질식했고, MBC는 추락했다.

우리는 처절하게 저항했다. 2010년 39일 파업, 2012년 170일 총파업으로 언론 장악에 맞서 싸웠다. 한국 언론 역사상 가장 악랄한 탄압이 자행됐다. 10명이 해고됐다. 200명이 징계받고 자기 자리에서 쫓겨났다. 저들은 우리에게 19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걸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끝까지 살아 남았고 끈질기게 저항했다.

김장겸 사장은 암흑 시대 9년의 한 가운데에서 보도국을 장악했다. 정치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그리고 사장까지 유례없는 수직 상승이었다. 2012년 대선 편파 왜곡보도, 2014년 세월호 유족 모욕과 왜곡보도, 2016년 최순실 게이

트 축소 몰타기 보도, 2017년 대선 최악의 편파 왜곡보도까지. 김장겸 사장은 이 모든 사태의 현장을 지휘한 직접적 책임자이다. 그 김장겸의 뒤를 봐주며 MBC 파괴를 합작한 자가 고영주 이사장이다.

이제 우리는 선언한다. MBC 암흑시대 9년을 끝내겠다. 헌법 21조 언론자유를 회복하겠다. 방송의 독립과 공정성을 되찾겠다. MBC는 지금도 파업 중이다. 7년간 이어진 이 기나긴 파업을 이제 승리로 마무리하겠다. 암 투병 중인 해직 기자도, 쫓겨난 PD들도, 사라진 아나운서들도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다.

이 승리를 향해 우리는 김장겸, 고영주 퇴진을 위한 강력한 마지막 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언론자유를 염원하는 국민과 시청자가 우리 뒤에 있다.

2017년 5월 2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

김장겸·고영주
고대영·이인호·박노황

OUT!”

전국언론노조, ‘언론 적폐’ 5인 퇴진 투쟁 돌입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이 김장겸 MBC 사장과 고대영 KBS 사장 등 공영 언론사 대표와 이사장 5인에 대한 즉각 퇴진 운동에 돌입했다. 언론노조는 지난 26일 서울 광화문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언론 장악 음모를 밝힐 진상조사 촉구와 해직 언론인의 복직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적폐 인사들의 완전 퇴진과 언론 정상화가 완성될 때까지 총력 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앞서 언론노조는 지난 19일 서울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참석자 만장일치로 김장겸 MBC 사장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고대영 KBS 사장, 이인호 KBS 이사장, 박노황 연합뉴스 사장 등 5인을 즉각 퇴진시켜야 할 적폐 대상으로 선정했다. 언론노조는 앞으로 ‘적폐 5인’이 재직 중인 언론사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매주 금요일 조합원들과 함께하는 퇴진 촉구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장겸·고영주 퇴진 행동
MBC ‘선언의 날’

2017년 6월 2일
오전 11시40분
MBC 상암광장

이제 길었던 어둠을 몰아냅시다.
모든 MBC 구성원들의
‘공정방송’ 의지를 보여줍시다!

대선보도
감시단 성명

사상 최악의 편파 · 왜곡 보도 책임자 김장겸 사장의 퇴진을 요구한다

극우파의 선전 도구가 된 MBC

19대 대선보도는 김장겸 사장 취임 후 첫 선거 보도였다. 이 기간 MBC는 특정 후보 낙선을 위해 뛰는 극우 세력의 대변인이자 기관지였다. 공공재인 뉴스는 경영진의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 MBC의 선거보도 준칙은 “공정성, 객관성, 정확성”과 “부정적 선거 행태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명하고 있다. 노동조합 민주방송실천위원회, 기자협회, 영상기자회는 소속 기자들로 구성된 대선보도 감시단을 구성해 지난 50일 동안 MBC 대선보도를 모니터링했다. 7차에 걸친 보고서를 종합한 결과 우리는 이번 MBC 대선 보도가 선거보도 준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역사상 최악의 편파 보도라고 결론내렸다. 대선보도 감시단은 이제 그 책임자인 김장겸 사장의 퇴진을 공식 요구한다.

편파 왜곡 보도의 5가지 유형

김장겸 사장, 오정환 보도본부장, 문호철 보도국장 체제가 19대 대선 MBC 보도에서 주로 사용한 편파 왜곡 수법은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1) 사이버 검증

<뉴스테스크>는 문재인 후보의 아들 취업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반복해 보도했다. 대부분 상대 후보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보도였다. 주장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는 시도는 거의 없었다. 반론 권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 일방의 주장과 그 해명에 대해 MBC가 직접 취재해 사실을 확인하고 반론권을 보장하는 검증 보도의 필수 절차들이 모두 무시됐다. 이는 검증을 가장한 사이버 검증이다.

2) 표적 편파 보도

문재인 후보와 달리, <뉴스테스크>는 홍준표, 안철수 후보에게 불리한 사실은 거의 다루지 않았다. ‘돼지 흥분제’ 성범죄 모의 논란이나, ‘단설 유치원’ 발언 등이 무시됐다. ‘정치 공방’이라는 현상 뒤에 비겁하게 숨은 채, 편파적 이슈 선택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을 확산시키려 했다. 명백한 선거보도 준칙 위반이자 편파 보도이다.

3) 뉴스 사유화

뉴스를 경영진의 사적 도구로 전락시켰다. 문제

인 후보가 <100분 토론>에서 MBC 정상화 문제를 언급하자, 사측은 <뉴스테스크>를 동원해 문 후보에 대한 보복 보도를 퍼부었다. 특히 MBC 사측의 성명을 그대로 요약한 방송이 나가는 낮부끄러운 일까지 벌어졌다. 경영진의 주장을 전달하는 이른바 ‘성명 보도’를 공공재인 전파, 그것도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뉴스를 통해 내보낸 것은 명백한 뉴스 사유화이자, 방송심의규정 9조 4항 위반이다.

4) 인터뷰 왜곡, 악의적 영상편집

문재인 후보의 MBC 정상화 발언에 대한 보복 보도를 하면서, 기자의 질문을 잘라내고 문 후보의 발언을 다른 맥락에 갖다 붙여 왜곡했다. 영상 편집도 악의적이었다. 문재인 후보 유세 화면에서는 유독 흔들리거나 어두운 화면을 자주 사용했다.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 방송사들이 자주 써먹던 수법이 30여 년만에 다시 등장한 것이다. 문 후보에 대한 의혹 보도에서 자료 화면을 쓰면서, 자료화면임을 알리는 고지를 누락해 시청자들을 현혹했다.

5) 여론조사 왜곡

단일화 효과를 분석하겠다는 후보들의 지지율을 단순 덧셈하는 유례없는 여론조사 분석이 등장했다. 또한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2,3위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 12개 가운데 특정 후보가 수치상 앞서거나 동률인 여론조사 3개만을 보도했다.

김장겸 사장, 세월호와 ‘최순실 게이트’도 왜곡 보도

1) 2012년 대선 편파 보도

MBC의 편파 왜곡 보도는 2012년 170일 파업 이후 더욱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2012년 12월 대선에서 <뉴스테스크>는 안철수 ‘논문 표절’ 왜곡 보도, 문-안 단일화 축소 보도 등 박근혜 후보에 유리한 편파 보도를 자행했다. 당시 정치부장은 김장겸 사장이었다.

2) 2014년 세월호 왜곡 보도

김장겸 사장은 2014년 세월호 보도 당시 보도국장으로서 취재와 방송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파괴했다. 경험과 능력 있는 수많은 기자들을 보도국 밖으로 쫓아내고, 편파 왜곡 보도를 총지휘했

다. 그 결과 ‘전원 구조’라는 대형 오보를 내고, 비인도적으로 유가족을 모욕하고, 정권을 보위했다.

3) 2016년 ‘최순실 게이트’ 축소 편파 보도

헌정을 파괴하고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 게이트’ 사건에서 MBC는 일관되게 사건을 축소하고 몰타기를 시도했다. 증거물에 대한 근거 없는 흠집내기로 특검 수사를 막으려 했다. 탄핵 국면에서도 여론을 왜곡하고 끝까지 박근혜 보위로 일관했다. 김장겸 사장은 당시 보도본부장이었다.

김장겸 사장의 퇴진을 요구한다

김장겸 사장은 2011년 2월 보도국 정치부장이 되면서 MBC 보도를 본격적으로 장악했다.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사장으로 고속 승진했다. 김장겸의 보도 장악 6년 동안 노동조합과 MBC 구성원들은 그의 편파 왜곡 보도에 항의하고 저항했다. 그러나 MBC 사측은 공정방송의 최소 장치였던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저항하는 구성원들을 해고, 징계, 유배시켰다. 그렇게 쫓겨난 구성원들이 200명이 넘는다.

MBC 뉴스는 2012년 대선 때 안철수 후보 논문 왜곡 보도, 2016년 총선 야권 단일화 관련 오보로 선거방송심의위의 중징계를 받았고, 이번 대선에서도 중징계와 여러 건의 행정지도를 받았다. 이 모든 사태의 직접적 책임자는 김장겸 사장이다.

MBC에서 저널리즘은 죽었다. MBC가 자랑하던 취재와 방송 시스템은 파괴됐고, 베테랑 기자들은 화면에서 사라졌다. 이 파괴와 부역 행위의 중심에는 언제나 김장겸 사장이 있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시도는 실패했다. 이제 국민이 MBC를 외면하고 있다.

김장겸 사장은 헌법 가치인 언론자유를 침해했고, 방송법을 위반했다. 따라서 MBC 대선보도 감시단은 사상 최악의 선거보도를 이끈 김장겸 사장이 퇴진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017년 5월 25일

MBC 대선보도감시단

(MBC 기자협회 · MBC 영상기자회 ·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민주방송실천위원회)

일방적 불방, 무모한 징계… 일선 PD들 집단 반발

콘텐츠제작국, 5년 만의 PD총회 개최

사측의 '6월 항쟁 30주년 다큐' 불방과 담당 PD 징계에 대해 일선 PD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콘텐츠제작국 소속 PD들은 이번 사태의 대응책 마련을 위해 지난 24일 총회를 개최했다. 2012년 시사교양국 해체 이후 콘텐츠제작국 PD총회가 열린 것은 5년 만에 처음이다. 총회 참석자들은 “제작 자율성을 훼손하고, 공영방송의 기본 책무조차 망각한 김장겸 경영진은 MBC를 망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아래는 PD 29명의 기명 성명 전문.

PD 29명 기명 성명

방송을 막고 PD들을 모욕한 경영진은 MBC를 떠나라!

지난 2월 28일, <MBC 스페셜>에서 제작 중이던 <탄핵> 다큐와 <6월 항쟁 30주년> 다큐 두 편이 ‘불방(不放)’ 처리되었다. 회사는 며칠 후 <탄핵> 다큐를 담당했던 이정식 PD를 구로에 있는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로 ‘유배’했고, <6월 항쟁 30주년> 다큐를 담당했던 김만진 PD를 타부서로 발령 낸 후 ‘징계’했다. 이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송일준 MBC PD협회장 역시, 언론과의 인터뷰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했다.

더군다나 회사는 ‘콘텐츠제작국’ 명의로 게시판에 글을 올려 <6월 항쟁 30주년> 다큐를 제작했던 김만진 PD의 징계 사유를 공개했는데, 이는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인격을 훼손하고, 프로그램 불방의 책임을 PD 개인에게 덮어씌우려는 행위다. 김만진 PD가 보직부장과 보직국장 등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임의로 제작비를 집행한 것처럼 글을 썼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김만진 PD는 2016년 11월 말, 김진만 당시 다큐멘터리부장에게 <6월 항쟁 30주년> 다큐를 제안했다. 김진만 부장은 김학영 국장과 의논한 후 “제작에 착수해도 좋다”고 대답했다. 이에 김만진 PD는 12월부터 섭외와 촬영을 시작했다. 2017년 1월 김진만 부장이 작성한 <MBC 스페셜> 방송 순서표에는 <6월 항쟁 30주년> 다큐의 방송 예정 일시와 담당 PD의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또한 김진만

부장은 김만진 PD에게 <6월 항쟁 30주년> 다큐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제작지원 사업에 응모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원사업 응모에 김학영 국장도 동의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당시 부장과 국장이 제작을 승인한 적 없다는 회사의 일방적인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물론 김학영 국장의 제작중단 지시가 있었음에도, 김만진 PD가 촬영을 진행해 제작비가 지출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에 거주하는 출연자와 이미 한국 촬영 일정을 조율하고 항공권까지 구매한 상태에서, 출연자와의 약속을 깰 수 없었던 담당 PD의 제작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그렇다면 김학영 당시 국장이 2월 28일 <6월 항쟁 30주년> 다큐 제작 중단을 지시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날 김학영 국장은 김만진 PD에게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2월 23일 김장겸 사장이, 27일에는 김도인 편성제작 본부장 등이 선임되었다. 그리고 28일 오전 신임 사장의 취임식이 열렸다. ‘달라진 상황’은 이를 두고 한 말이다.

김도인 편성본부장은 취임하자마자 김학영 국장에게 “김현중 전임 본부장이 탄핵 다큐 제작을 승인한 바 없다고 들었다. 나 역시 이 방송을 승인할 수 없다”고 압박해 방송을 코앞에 둔 <탄핵> 다큐를 불방시켰다. 김장겸 사장과 김도인 본부장 체제에서 김 국장은 <6월 항쟁> 다큐마저 부담을 느껴 ‘킬(kill)’한 것이

분명하다.

홍상운 신임 콘텐츠제작국장 역시 <6월 항쟁> 다큐 제작을 불허했다. 홍상운 국장은 김만진 PD에게 “방송에는 타이밍이 있는데 지금은 방송할 수 없다. 기획안을 들고 김도인 본부장에게 보고할 수 있지만 100% 안 된다”고 말했다. 전임과 신임 국장 모두 김장겸 사장·김도인 본부장 아래서 눈치를 살피고 경영진의 ‘의중’에 따라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충실한 집행자가 되었다.

지상파 3사의 다큐멘터리 중 <MBC스페셜>만이 촛불시위와 탄핵을 방송하지 못했다. 6월 항쟁 30주년을 기념하는 다큐마저 제작이 중단되었다. 일련의 사건들은 MBC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다. 현재 콘텐츠제작국 PD들은 시청자보다 경영진의 입맛에 맞춰 방송 소재를 찾아야 하는 절망적 상황이다. 시청자를 외면하고, 콘텐츠 제작의 자율성이 훼손된 상황에서 프로그램 경쟁력 제고와 회사의 위상 강화는커녕, 공영방송의 기본적인 책무조차 다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분명하다. 바로 김장겸 사장과 김도인 본부장을 비롯한 MBC 경영진과, 관련된 전·현직 보직간부들이다. MBC 콘텐츠제작국의 프로그램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MBC를 망친 데 대해 사과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라!

2017년 5월 25일

콘텐츠제작국 PD

김동희 김보슬 김영원 김인수 김정민 김호성 박상준 서정호 성기연 오동운 오행운 이경용 이동희 이미영 이선태 이승준 이우환 이종혁 이종각 이지는 이준근 정명훈 조성현 조준묵 조철영 채환규 한봉근 한학수 한훈기

검찰, ‘안광한 · 윤길용 게이트’ 본격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 배당… 내일 고발인 조사

‘안광한 · 윤길용 게이트’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안광한 전 MBC 사장과 윤길용 MBC NET 사장 등 전 · 현직 MBC 임원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에 대한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고발 사건을 조사1부에 배당하고 내일(30일) 고발인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수부와 형사부의 종합적 성격을 갖춘 조사부는 고소 · 고발 사건 중 사안이 중대하거나 복잡한 사건을 주로 담당한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최근 논란을 빚은 검찰 간부들의 ‘돈 봉투 만찬’ 사건도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MBC를 국민의 품으로 공동대책위원회’는 안 전 사장과 윤 사장 외에도 김장겸 사장, 백종문 부사장,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김광동 방문진 이사 등을 고발했다. 안 전 사장은 MBC플러스 사장 재임 시절 해외출장비를 개인 관광비로 돌려 써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사장은 울산MBC 사장 재임 시절 회사 공금으로 인사권자들에게 로비 공세를 퍼부어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사장에게서 접대를 받은 김장겸 사장과 안광한 전 사장, 백종문 부사장과 고영주 이사장, 김광동 이사 등은 배임 수재 혐의로 고발됐다.

본부 조합원 수 급증 서울 900명 돌파 전국 1,700명 돌파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끝까지 추적
개별 고발 등 엄정 의법 조치



김장겸 경영진을 퇴출시키고 MBC를 재건하자는 목소리에 동참하는 MBC 구성원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6일 기준으로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조합 가입자가 서울지부 900명, 전국 1천700명을 돌파했다. 지난 2월 12기 조합 집행부 출범 이후 3개월 만에 150명 이상이 신규 또는 재가입한 것이다. 전화와 방문을 통한 가입 요청은 물론, 카카오톡 플러스 페이지 등 모바일을 통한 가입 요청이 계속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2000년대 초중반까지 유지했던 ‘2천 조합원 시대’를 다시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합원 수 급증은 가입 범위를 보직자 등 전 사원으로 확대한 조합 규약 개정에 호응하는 구성원들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공공재인 지상파 뉴스를 농단하는 등 막장 행보를 지속하고 있는 김장겸 경영진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투쟁 분위기 확산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부당 전보 인사를 자행하고 있는 사측의 노조 탄압과 부당노동행위가, 다수 구성원들의 공정방송 염원을 꺾지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서울 뿐 아니라 전국 17개 지부의 노력도 빛을 발했다. 대전MBC 이진숙 사장의 노조 탄압에 맞서 지난달 18일 계약직 분회와 통합을 이뤄낸 대전지부가 그 좋은 예다.

조합원 급증에 불안을 느낀 사측의 도발은 여전하다. 보복 발령과 인사 불이익 등의 부당노동행위 사례들이 속속 접수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81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것”, “노동조합 조직이나 운영 등의 행위에 대하여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일체의 행위” 모두 부당 노동행위이며 법적 처벌을 받도록 돼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조합은 최근 3개월간 ‘부당노동행위 신고 센터’ 운영 등을 통해 관련자 진술과 증언 등 잇따르는 부당노동행위 증거를 확보했다. 우리는 다시 경고한다. 부당노동행위에 연루된 경영진과 보직자 한 명 한 명을 끝까지 추적하고 모두 개별 고발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지역MBC 적폐’ 이진숙 · 송재우는 퇴진하라!

춘천 지역사회 ‘송재우 퇴출’ 한목소리



‘송재우 기행(奇行)’ 점입가경

춘천MBC 송재우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역사회를 달구고 있다. 임금 교섭 회피와 최현영 춘천지부장에 대한 정직 3개월 중징계 등 송 사장의 노조 탄압이 극단으로 치달았기 때문이다. 춘천지부 조합원들은 연일 송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피켓팅 시위와 기자회견에 나서고 있다.

지역사회의 각종 단체들도 송 사장에 대한 퇴진 투쟁에 연대하고 있다. 한국프로듀서연합회 강원지부와 강원기자협회는 지난 8일과 11일 각각 성명을 내고 “송 사장에게 주어진 퇴진의 골든타임이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며 “강원 언론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송재우 사장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8일 춘천지역 13개 시민단체들도 춘천MBC 정문 앞에서 송재우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7일에는 춘천시민단체네트워크가 중심이 된 ‘언론적폐 청산을 위한 춘천MBC 송재우 사장 퇴진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아침 출근시간에 맞춰 피켓팅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송재우 사장은 출퇴근 시간을 불규칙적으로 운용하며 조합원들을 피해 다니기 급급하고 있다. 이미 조합원들에 대한 ‘햇바닥 조롱’으로 전국적 망신을 자초한 송 사장의 기행(奇行)도 날이 갈수록 더욱더하고 있다. 최근 노조가 집회신고를 내고 공유지에 현수막과 천막을 설치하자 ‘시설물들을 철거하지 않으면 그 일대 땅을 모두 임대해 점유권을 주장하겠다’는 황당한 내용의 공문을 조합에 보내왔다. 그런가 하면 ‘징계 사유를 자세히 밝혀달라’며 사장실을 찾은 최 지부장을 향해 일언반구도 없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촌극을 벌였다. 지난 25일에는 아예 사장실에 폐쇄회로TV 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했다.

‘이진숙 퇴진’ 사내·외 피켓팅 시위 26일째



지역 시민단체 연대 ‘1인 시위’ 돌입

대전MBC 이진숙 사장 퇴진을 위한 대전지부(지부장 이한신)의 총력 투쟁 열기도 고조되고 있다. 대전지부는 최근 보도국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 중징계 등 사측의 노조 탄압 행위가 계속되면서, 이 사장과 최혁재 보도국장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전면 투쟁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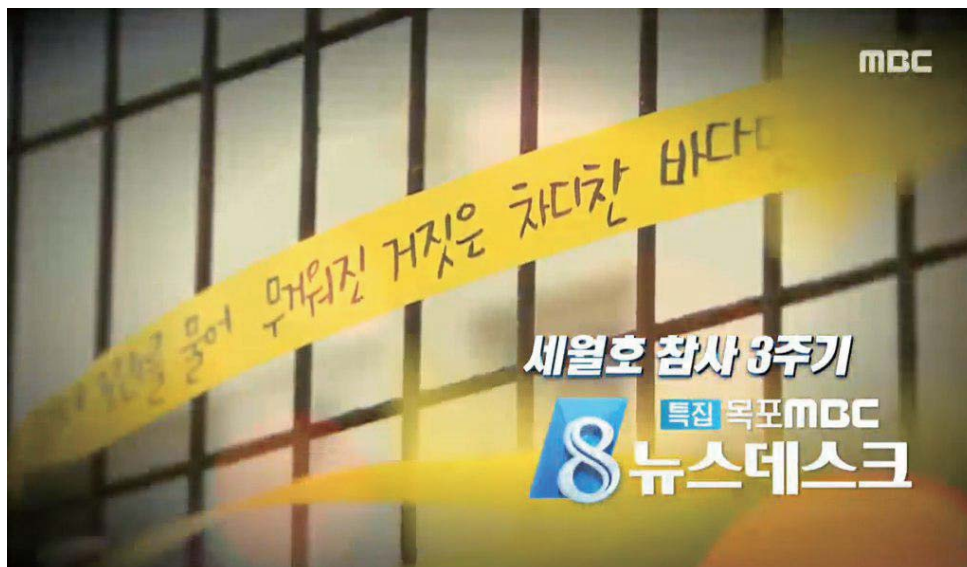
대전지부는 이달 4일부터 사내에서 부당 징계 철회와 이진숙 사장 등의 사퇴를 요구하는 피켓팅 시위를 출근시간과 점심시간에 진행하고 있다. 지난 18일부터는 회사 밖에서도 피켓과 현수막을 활용한 시위를 병행하고 있다.

대전지역 시민 사회 단체들도 연대 투쟁에 속속 동참하고 있다. 지난 2일 대전지부는 국민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와 ‘언론부역자 청산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진숙 사장 퇴진 투쟁을 공동 결의했다. 오늘(29일)부터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한 이진숙 사장 퇴진 1인 시위가 대전MBC 앞에서 전개된다.

앞서 대전MBC는 지난달 2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교선, 이승섭 기자에 대해 각각 감봉 1개월과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징계 사유는 이교선 기자의 경우 7분 지각과 취재 계획 미제출에 따른 업무지시 불이행이었고, 이승섭 기자는 특집 프로그램 방송 지연, 무단 결근, 업무지시 불이행 등이었다. 그러나 이교선 기자(보도민심위 간사)는 노사협의회에서 사측을 비판한 데 따른 사실상의 표적 징계였다. 이승섭 기자 역시 보도국장 등 간부들의 무리한 다급 제작 요구와 폭압적 지시 등에 저항한 결과였다. 사측은 사태 발단의 근본 원인과 제작 과정에서 빚어진 보직자들의 관리 소홀 등은 외면한 채 ‘보복성 징계’로 조합원들에 대한 탄압을 자행했다.

민실위 선정 ‘특별상’ 수상작

세월호 참사 3년 취재 · 보도 /목포지부



2014년은 MBC 보도 역사의 치욕으로 기록된 한해였다. <뉴스데스크>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전원 구조’ 오보를 냈다. 김장겸 사장은 당시 보도국장으로, 편집회의에서 세월호 유가족을 “깡패”라고 비하했다. 박상후 당시 전국부장은 리포트를 통해 유가족들을 모욕했다.

간부들의 이런 행태가 현장 기자들에 대한 거센 비난으로 이어졌지만 목포지부 조합원들은 3년 넘게 세월호와 팽목항 현장을 떠나지 않고 지켰다. 전원 구조 오보를 막기 위한 노력이 좌절되고, 해경이 구조 동영상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부터 세월호 운송장비 의혹까지, 자체 발굴한 여러 특종 기사들이 <뉴스데스크>에 방송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고통, 풀어야 하는 의혹, 부실한 안전 대책을 지역에서 꾸준히 조명해왔다.

1주기, 2주기에 이어 3주기에든 특집 <뉴스데스크>를 편성해 아직 규명되지 않은 세월호 침몰의 원인과 각종 의혹,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다뤘다. 또한 세월호 참사가 남긴 상처를 보듬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향후 과제들을 제시했다.

“촛불” 다큐멘터리

광주지부 “2016 우리가 쫓는 촛불의 기록” : 최선영 · 김인정 조합원

대구지부 “깨어나 일어나” : 이길로 · 김현주 조합원



〈광주지부〉

김장겸 체제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축소하고,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촛불 집회에 대한 몰타기 보도를 자행하고 있을 때에도 지역 MBC 조합원들은 묵묵히 지역의 촛불 민심을 전하고 있었다.

광주지부의 특집 다큐멘터리 “2016 우리가 쫓는 촛불의 기록”은 1980년 금남로 민주대성회가 재현된 광주의 모습, 시국선언에 나섰던 광주의 청소년 세대, 세월호 3년을 지키고 있었던 ‘광주 시민상주 모임’에 주목하며 지역의 촛불을 기록했다. 시민들이 직접 촬영한 장면을 반영해 시청자들의 참여 공



〈대구지부〉

간도 제공했다.

대구지부의 신년 특집 “깨어나 일어나”는 한국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에서도 오만한 권력을 심판하기 위해 모인 촛불의 목소리를 담았다.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촛불집회와 직접 민주주의를 공유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데이터를 분석해 보여주는 시도를 했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와 촛불 집회 정국에 대한 MBC의 보도 태도를 질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가감 없이 전달하며, MBC 구성원들의 자기 반성과 저널리즘 수호를 위한 노력을 보여줬다.

“MBC 예능이 잘 나간다고?” “잘 나가자…7년 동안 PD 16명이 나갔으니…”

퇴사한 예능 피디 A

아, 진짜 그때 생각하면 또 열받네...., 최근 몇 년 동안은 회사가 아주 가관이었잖아? 보도? 그래 알아. 불쌍하고 X된 거. 우리 동기들 많이 쫓겨나 있고 볼 때 마다 안쓰러웠어. 근데, 예능은 상태가 좋았다고? 누가 그래? 내가 작년에만 사장한테 두 번 불려갔어, 자세한 애긴 좀 그래. 근데, 아 진짜... 이 양반이 대체 방송에 대한 이해나 책임감이란 게 조금이라도 있는 인간인가에 대한 심각한 회의가 들더라고, 방송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무슨 자기가 (외국) 대사 같은 손님들 데려다가 가오잡으려고 하는 게 뻔히 보이더라고. 내가 그렇게는 안 된다고 에둘러 애길 해도 못 알아들어. 사장이 그러면 밑에서라도 좀 말리든지 해야 되는데, 이 무슨... 예산도 안 주고 말도 안 되는 얘기가 하면서 우리한테 조직의 장이라는 사람이 내가 밥값을 못한대, 아니 대체 이 회사에서 밥값은 누가 못하고 있는데? 이 조직에서의 밥값은 어이 없는 지시 그냥 ‘내네’ 하고 옆드려 받드는 값인 거야? 그럼 난 밥값 못한 거 맞네. 알다시피 내가 초년병 때부터 뺑이 치는 것만 계속 했잖아? 솔직히 그건 불만이 없어. 지난 십 수년 동안 프로그램 하면서 회사에 돈은 엄청 벌여준 것 같은데, 그게 밥값이 아니고... 뭐 지난 일이니 더 얘기 하고 싶지는 않네. 그런 사람이 밥값 잘했다고 이번에 계열사 사장 갔더라고... 참 내.

퇴사한 예능 피디 B

돈 때문에 나간 것 아니냐고? 유배지에 있는 회사 동료들, 특히 보도국 동기들 생각하면, 나가고 싶어도 못나간 사람들한테 맞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 미안한 것도 사실이고, 근데 말야, 회사 경영진이 재네들 다 돈 때문에 나갔다고 소문낸다는 얘기 들으니까, 진짜 확 뻑치더라고... 생각해봐 내가 입사했다고 고향 어머니가 동네 잔치하셨다고, 우리 때 다들 그러지 않았어? 돈? 솔직히, 내가 사표 쓰기 전에 무

슨 일이 있었는지 예능국은 다 알아. A국장이 나하고 애들한테 한 얘기 듣고도 계속 회사 다닐 사람 몇이나 있을까? 내가 최근 몇 년 동안 어쨌든 프로그램 한 거 마다 ‘중타’ 이상 다 쳤잖아? 근데, 진짜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 그 날 저녁에 진짜로 계약 조건도 안 듣고 바로 결심했어, 옮겨서 좋으냐고? 음 최소한 말이야, 내가 여기서는 존중받고 있다는 게 확 느껴져. 하고 싶은 거 다 하래. 연속으로 실패해도 괜찮대. 그리고 무슨 우리보다 한참 신생 회사인데, 조직이 합리적이야. 행복하냐고? 음... 진짜 미안한데, 좋아. 최소 5년 동안의 기획안은 여기서 몇 달 있으면서 이미 다 써봤어. 한 번 신나게 일 해보는 거지 뭐.

경력 입사 예능 피디 C

아... 힘드네요... 힘들어요. 지난 번 있던 회사보다 더 힘드네요. 아, 그거요? 예상 못했죠. 그래도 지상파이고, 예능왕국 MBC라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인 줄은 몰랐죠. 조연출의 삶은 다 똑같다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거기서는 조연출도 한 시즌 거 끝나면 같이 좀 쉬었어요. 물론 프로그램 진행 중일 때는 거의 잠도 못 자는 삶이었지만요, 최소한 연출이랑 입봉 못한 조연출이랑 같이 쉬는 게 있었어요. 물론 쉬는 기간은 많이 다르지만요~~ 여기요? 여긴 끝나자마자 바로 다른 프로그램 조연출로 불려왔잖아요? 물론 불러주시니 감사한 것도 있긴 있어요. 경력으로 들어왔는데, 잘해야죠. 근데, 청운의 꿈을 안고 오긴 했는데, 선배님들 줄줄이 나가시는 거 보니까, 좀 걱정도 되고, 내 미래는 괜찮을까 싶고, 회사 분위기도 뭐... 사실 예능 말고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잘 한 건가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처음에 왔을 때는 주변에서 다들 축하한다는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제가 있던 회사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MBC? 굳이 왜 가?” 이런 분위기 강한 것 같더라고요. 또 작년에 들어온 사람들 도 다시 다 나가고 좀 불안합니다 솔직히...

현업 예능 피디 D

회사 안팎에서 예능 돈 많이 벌고, 인센티브도 많이 받고, 회사 나가도 돈 많이 받고 옮겨서 부럽다고 그러시던데, 회사가 그런 식으로 언론플레이 할 때마다 착잡하거든? 제발 우리 보고 돈돈 그러지 좀 말라고들. 안 그래도 제작비 압박 때문에 죽겠는데, 진짜. 제발 제작비 압박이나 좀 덜하길 바란다.

현업 예능 피디 E

솔직히 자막 하나 자기 눈에 정치적으로 거슬린다고 들쭈시고 다닌 것 때문에 빈정 상해서 나간 예능 피디도 있잖아? 사실 그거 시청자들까지 반응 다 좋았잖아? 그런 것부터 좀 지X을 안 했으면 좋겠어. 꼭 감도 없는 인간들이 그런 것 하나 쟁심지 켜고 지X을 하더라고.

제발 우리 예능 피디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제작만 하게 좀 놔둬 주면 제일 좋겠어.

우리도 자존심이란 게 있는 집단이라고.

신입 사원 뽑아 달라고 난리를 쳐도 안 뽑아 주고, 솔직히 경력 중에 쓸 만한 친구도 많지만, 이걸 좀 보완적인 게 돼야지, 신입이 기본이고 보충적으로 경력을 뽑아야 되는 거 아냐? 사람 모자란다고 비명을 질러도, 사람 많잖아 라고 허무개그만 시전 중이신데, 솔직히 사장 오더니 똥 오더로 쓸데없는 일을 엄청 벌여 놓고 피디들을 여기 저기 막 굴리니까 정작 프로그램에 투입할 조연출은 부족한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 거잖아? 제발 인사 시스템부터 좀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지금 MBC가 정상적이라면 그들이 과연 회사를 나갔을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요즘 MBC에서 일한다고 해서 무슨 자긍심이 있어? MBC 뉴스가 저 모양이라 “MBC 디스카운트”야. 프로그램에서 혹시라도 하나 잘 못 하면 MBC라는 이유만으로 두 배, 세 배 더 욕을 먹고, 잘 된 점이 있더라도 재네가 웬일로? 이런 반응들이잖아? 차라리 JTBC나 tvN에서 프로그램을 띄우는 게 더 낫지.

* 이 보고서는 한 달 전에 작성됐다. 그 사이 또 1명의 예능 피디가 퇴사하고 이직했다.